10-20 (통권 제447 호
2010. 7. 2.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 행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 하반기 산업별 경기의 명암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판단 ····· 1

2.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 11

① 조선업

② 기계산업

③ 자동차산업

④ 철강산업

⑤ 석유화학산업

⑥ 해운업

⑦ 물류택배업

⑧ IT제조업

⑨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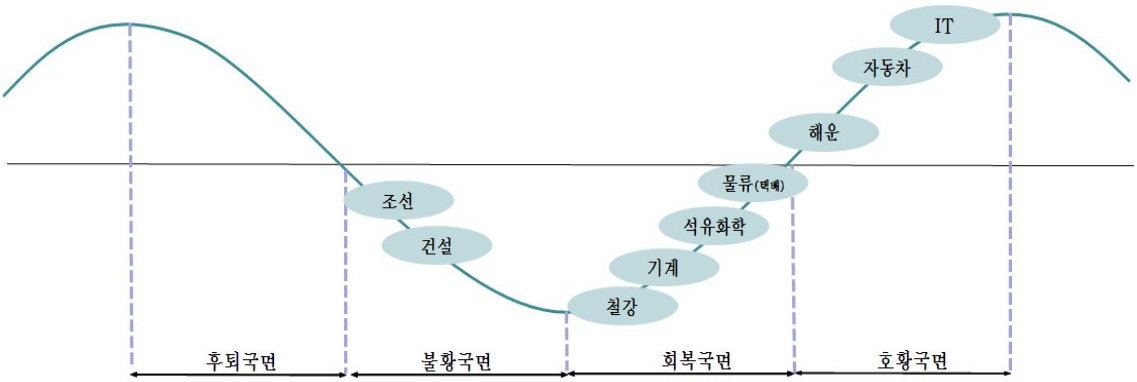
3. 시사점 ····· 33

■ HRI 경제 지표 ····· 36

1. 최근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판단

최근 주요 산업별 경기국면을 살펴보면, (조선업 - 불황) 생산지수와 수주잔량으로 분석해 본 결과 조선업은 2008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경기 후퇴를 시작하여 2009년 4/4분기에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0년 1/4분기의 수주 잔량이 신규수주 급감으로 정점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해 있어 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기계산업 - 회복)** 국내외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계산업은 생산 증가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출하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업종 내 기업들이 경기불확실성을 우려하여 증가하는 시장수요에 재고 감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산업 - 호황)**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생산 증가세로의 전환 시점이 앞서고 생산 증가폭이 컸으며, 2010년 1/4분기 이후 재고와 출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 회복)** 철강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1/4분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화학산업 - 회복)**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이미 2009년 상반기에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해운업 - 호황)**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과 컨테이너물동량 수준으로 본 해운업 경기는 2010년 1/4분기 회복 국면을 지나 2/4분기에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택배업 - 회복)** 금융위기 기간중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던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 생산 지수는 2009년 3/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회복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IT제조업 - 호황)** 제조업 ICT 생산지수와 재고-출하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IT제조업은 이미 2009년 2/4분기에 회복국면에 2009년 4/4분기에는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 불황)** 건설업은 민간·건축 부문 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토목 부문의 건설기성액 증가율마저 둔화되고 있어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주요 산업의 2010년 경기 국면 >



2.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경기의 특징으로는 첫째,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산업들이 여전히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당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저성장, 고실업, 저소비의 뉴노말(New Normal)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기조에 있고 우리 산업들이 고성장을 지속중인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하반기 산업별 경기 국면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호황 : IT, 자동차, 해운) 다른 산업에 비해 먼저 글로벌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IT, 자동차 산업 등이 해외 수요 확대로 호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교역 증가로 해운업 경기도 호황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철강, 기계, 석유화학, 물류)** 한편 철강, 기계, 석유화학, 물류(택배) 산업은 상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황: 조선, 건설)** 그러나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불황이 예상되며 건설업 경기도 민간·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일부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은 개도국의 시장진입으로 출혈경쟁이 진행되는 치킨게임 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일본 기업들과 국내 기업과의 시장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T제조업의 경우 애플 아이폰의 예에서 보듯이 신개념의 제조-서비스 융합제품 등장이 업계 순위를 급변시키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라 업종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군인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IT등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류, 건설 등 내수산업은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해운, 물류 등의 연료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2010년 하반기 산업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조선업) 우선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선사들의 인도 지연 요구, 계약 취소 등으로 건조량이 감소하는 불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방산업인 해운업 경기가 호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운사들이 중고선박 위주로 선단을 확충할 것으로 보여 신규수주 또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 하반기에는 국내외 많은 산업들이 그동안 미흡했던 생산설비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기계류의 내수 및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최근 국내외 수요 확대,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산업)** 철강산업은 내수,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 개도국의 시장진입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상반기 시장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중국 등 개도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운업)** 해운업은 상반기 개도국 중심의 글로벌 해운 물동량 확대로 호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에 들어서는 선진국 시장도 회복세가 강화됨에 따라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택배업)** 상반기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물류산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물류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제조업)** 2009년 말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한 IT산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윈도7'의 보급 확대,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제품 수요 확대로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건설업은 상반기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불황국면을 맞고 있다. 하반기에도 공공·토목부문의 수주 둔화, 미분양주택 문제로 인한 민간·건축부문 침체 지속으로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 시사점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개도국의 시장진입으로 만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은 가격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산업이 치킨게임에서 생존하여 시장 선도 지위를 확보한 예처럼 비용절감 등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최근 급성장하는 이종융합산업과 같은 차세대 수종산업(樹種産業) 육성을 위해 산업 전략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우리 주요 중화학 수출 산업들이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육성 전략에서 벗어나 신수종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애플사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이종융합 제품인 아이폰을 통해 유수의 휴대폰 제조기업들을 추월하여 시장 선도 기업으로 올라섰던 사례와 같이 제조업에 안주해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셋째, 원자재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업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리스크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공동 구매, 장기 공급 계약 확대 등으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 정부 차원에서 원자재에 대한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재 비축 및 방출 대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정체되고 있는 선진국의 뉴노말 '소비시장과 고성장중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소비시장에 대한 차별적 공략이 요구된다.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고부가·고기술 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반면, 중국 등 신흥공업국 소비시장에 대해서는 고성장으로 고급품 소비 욕구가 높아지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패스티지' 전략처럼 고급 브랜드이면서 중저가인 제품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 경기 사이클 별로 차별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내 불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운업과 같이 수출 경기 회복으로 경기 호황 국면에 진입한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1. 최근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판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동향

- 제조업은 2009년 하반기 회복 국면에 들어선 이후 최근까지도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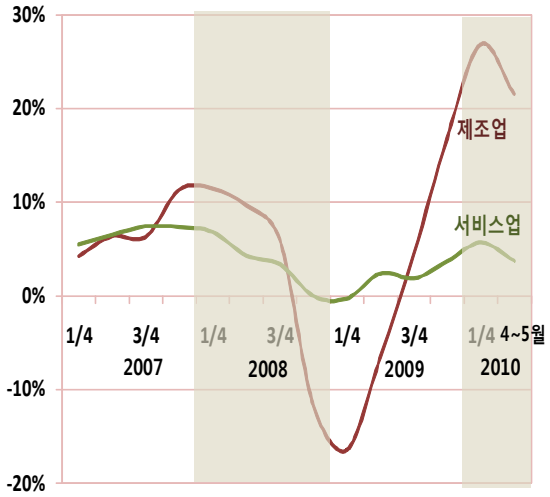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3/4분기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임

· 특히, 재고-출하 사이클 상 재고와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은 제조업내 업종들이 회복 국면 이상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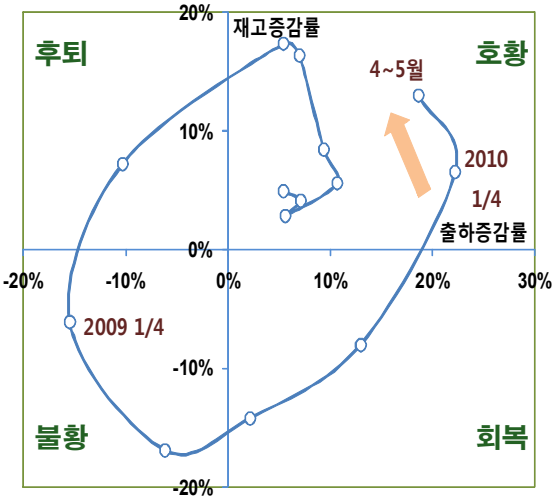
- 서비스업도 200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까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3% 감소에서 2/4분기에 2.4% 증가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증가세를 지속중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제조업 재고 - 출하 사이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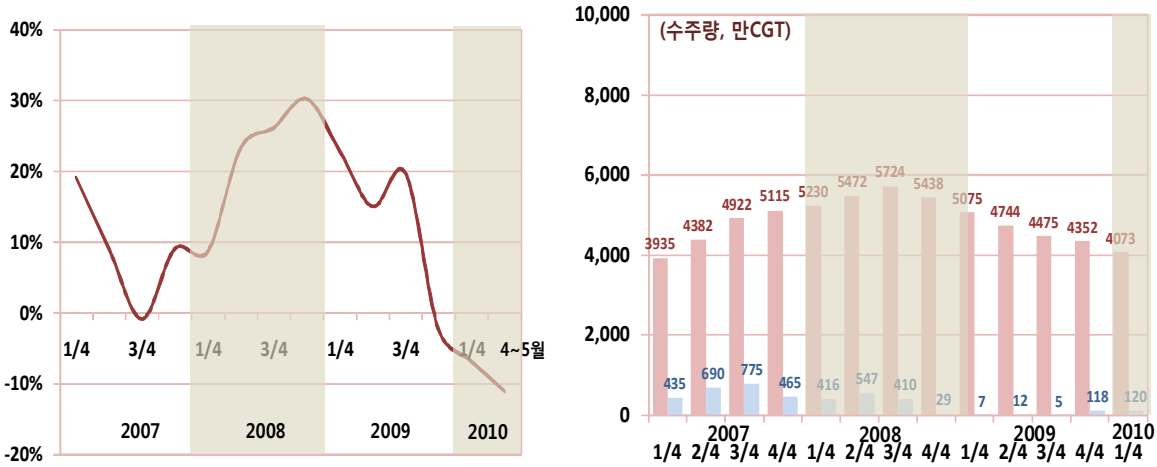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① 조선업 : 불황 국면

- **(생산) 조선업은 2009년의 경기 후퇴 국면을 지나 2010년 상반기는 불황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2008년 4/4분기에 약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4/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재고-출하) 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신규 수주 급감으로 정점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
  -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의 수주 잔량은 2008년 3/4분기 5,724만 CGT[1]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010년 1/4분기에는 4,073만 CGT로 정점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신규수주도 2009년 4/4분기 이후 분기당 100만 CGT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2008년 분기당 평균수준인 약 500만 CGT의 20%에 불과함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 조선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조선협회.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2)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은 9개 회원사 기준.

1)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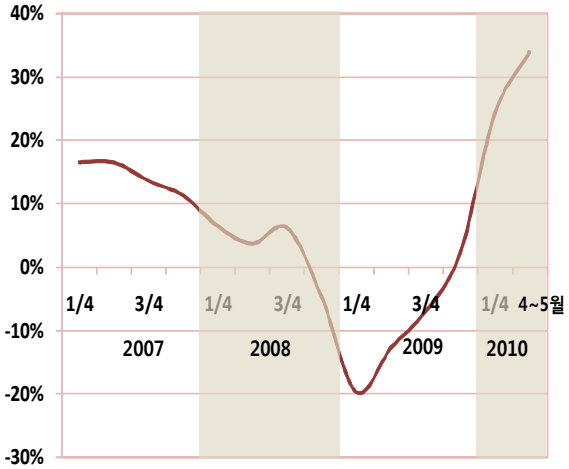
② 기계산업 : 회복 국면

- **(생산) 국내외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계 생산은 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됨
  - 2010년 4~5월중 전년동월대비 30% 이상의 생산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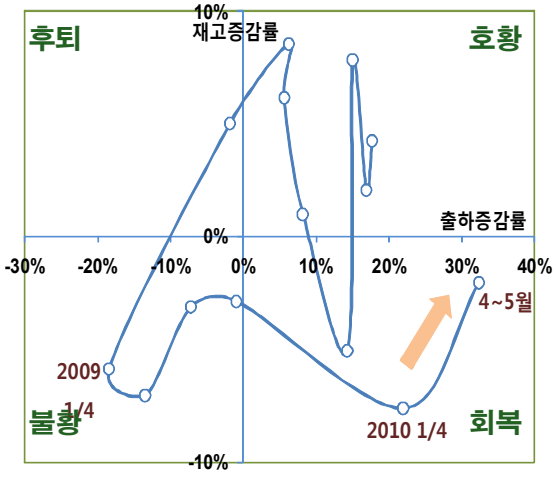
- **(재고 - 출하) 출하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는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계산업은 2009년 1/4분기~4/4분기에 재고와 출하가 모두 감소하는 불황 국면에 위치하였음
  - 2010년 1/4분기와 4~5월의 기간에는 출하 증가에 생산 능력 확충보다는 재고 감소로 대응하는 회복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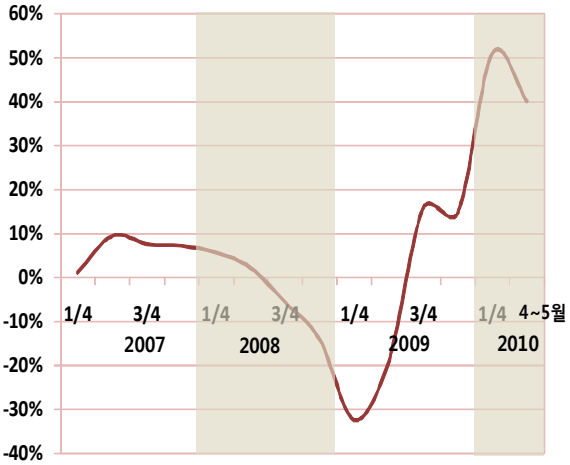
③ 자동차산업 : 호황 국면

- **(생산)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생산 증가세로의 전환 시점이 앞서고 생산 증가폭이 컸던 산업으로 판단됨**
  - 자동차산업 생산은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0%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나,
  - 2009년 3/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0% 대, 4~5월에는 월평균 40% 내외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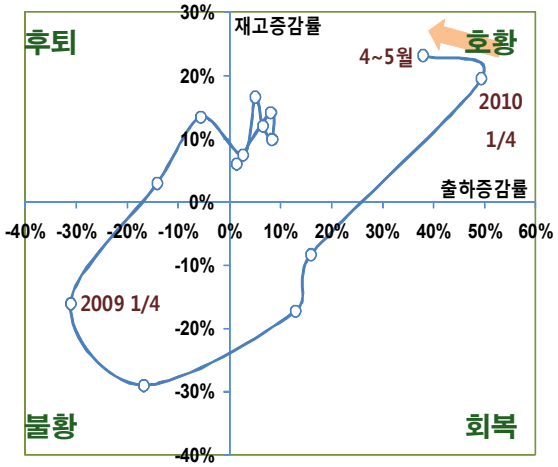
- **(재고 - 출하) 자동차산업은 재고 - 출하 사이클상 2010년 1/4분기 현재 재고와 출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산업은 재고 - 출하 사이클상 2009년 3/4분기에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 2010년 1/4분기 이후 재고와 출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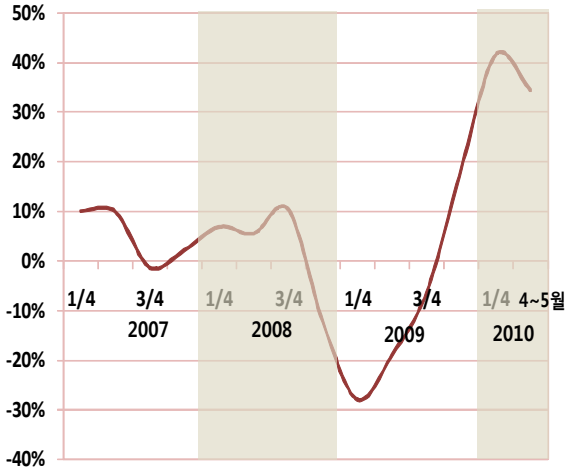
④ 철강산업 : 회복 국면

- **(생산) 철강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2009년 4/4분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하였으며 현재에도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철강산업 생산은 2009년 1/4분기 약 30%의 감소폭을 보이다가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섬
  - 2010년 1/4분기 이후 철강산업 생산은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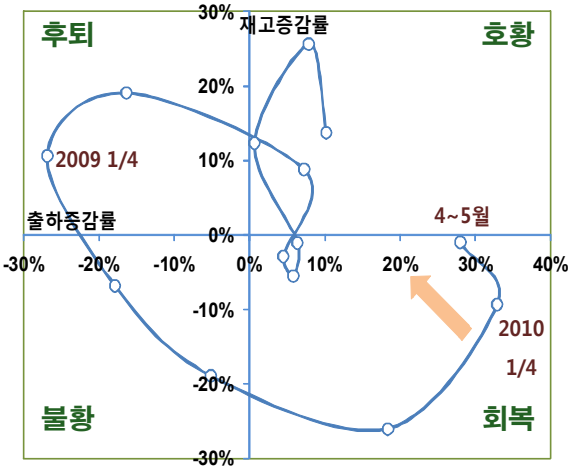
- **(재고-출하) 재고-출하 사이클 상 철강산업은 재고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출하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2/4분기 이후 철강산업의 재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0년 2/4분기 이후에는 재고가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철강산업의 출하는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0년 1/4분기 이후에는 3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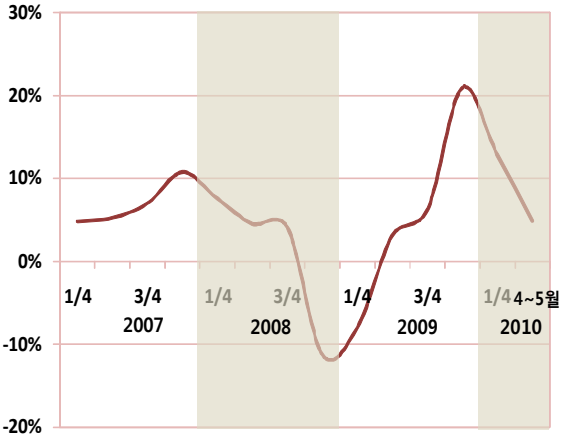
⑤ 석유화학산업 : 회복 국면

- **(생산)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이미 2009년 상반기에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생산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다른 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인 200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회복 국면에 진입함
  - 그러나, 2010년 1/4분기 이후 생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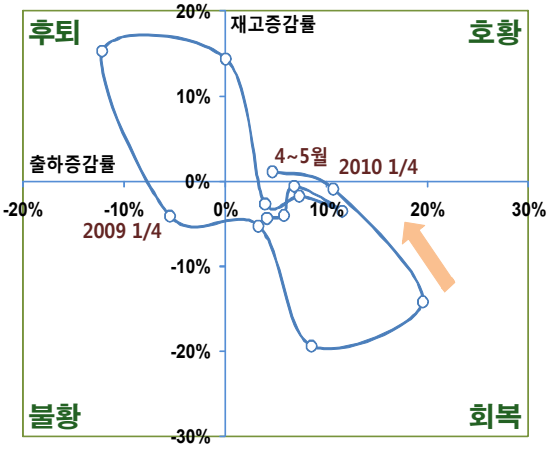
- **(재고 - 출하) 석유화학산업은 회복국면에서 짧은 호황국면을 거치고 후퇴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09년 3/4분기 이후 2010년 1/4분기까지 재고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가 증가하는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0년 4~5월의 국면만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 재고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출하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짧은 호황국면을 경험한 뒤 바로 경기 후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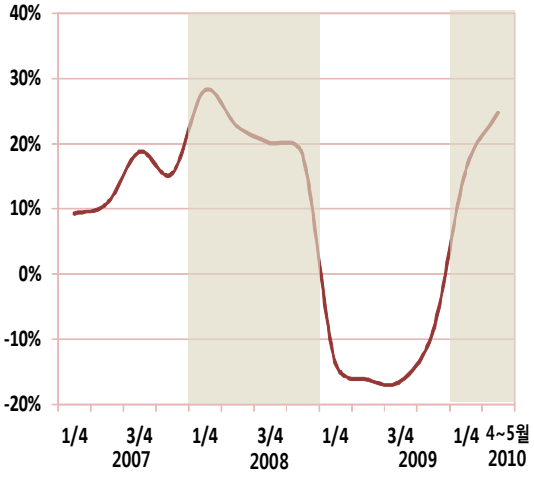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주: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⑥ 해운업 : 호황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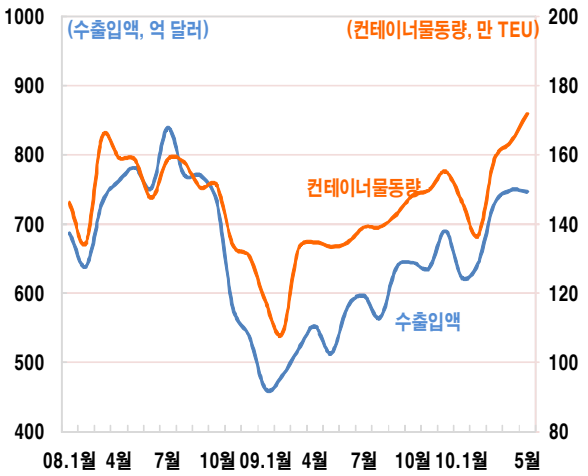
- **(생산) 외항운송업 생산지수로 살펴본 해운업 경기는 세계 교역의 확대로 경기 불황 국면에서 빠르게 벗어나 2010년 1/4분기 이후 경기 확장세가 강화되고 있음**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는 2009년 4/4분기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1/4분기 이후 빠르게 경기가 확장되고 있음

- **(컨테이너 물동량) 5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2/4분기중 호황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 5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71만 8,000 TEU[2]로 전년동월인 2009년 5월에 비해 약 29% 증가함
  - 이는 월간 물동량 기준으로 그동안 사상 최고치였던 2008년 3월의 165만 3,000 TEU보다도 3.9% 많은 수준임

< 외항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컨테이너물동량 및 수출입액 추이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2) 컨테이너물동량은 국내 내외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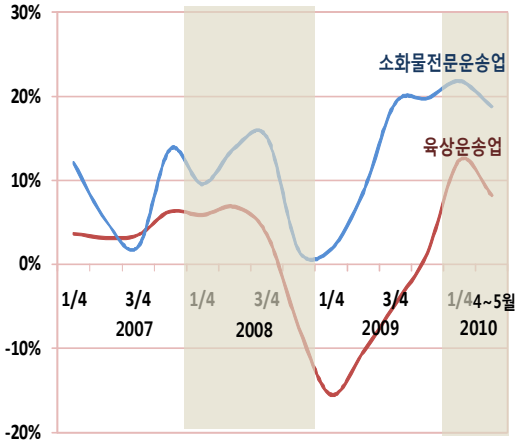
2)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의미.

⑦ 물류택배업 : 회복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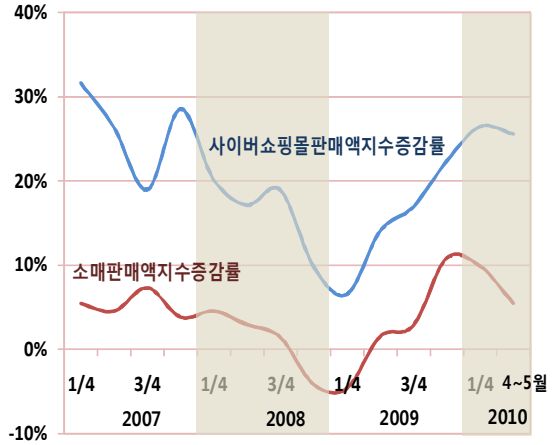
- **(생산) 육상운송업 생산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소화물 전문운송업 생산지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물류업(택배)은 경기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육상운송업의 생산지수는 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09년 4/4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 반면, 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은 이번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증가폭이 둔화될 뿐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2009 3/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중임

- **(수요시장) 소화물 전문운송업이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주된 수요처인 사이버쇼핑몰판매시장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 때문으로 판단됨**
  - 사이버쇼핑몰판매액지수는 이번 금융위기 중에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2009년 1/4분기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전반적인 소비 동향을 파악해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2009년 2/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육상·소화물전문 운송업 생산지수 증감률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1) 업종 생산지수, 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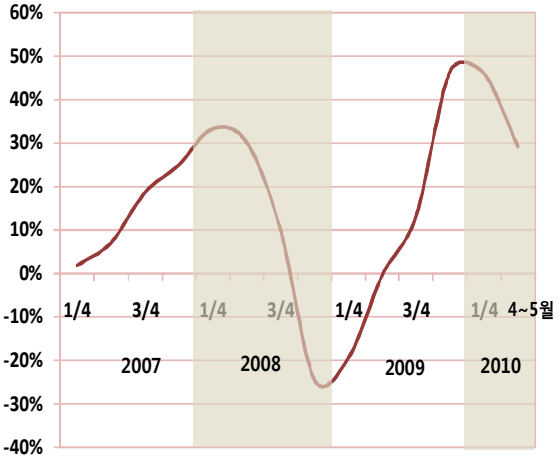
⑧ IT제조업 : 호황 국면

- **(생산) 제조업 ICT 생산지수로 살펴본 결과 IT제조업은 경기 회복 국면을 지나 호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09년 2/4분기부터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음
  - 제조업 ICT 생산지수는 2009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약 5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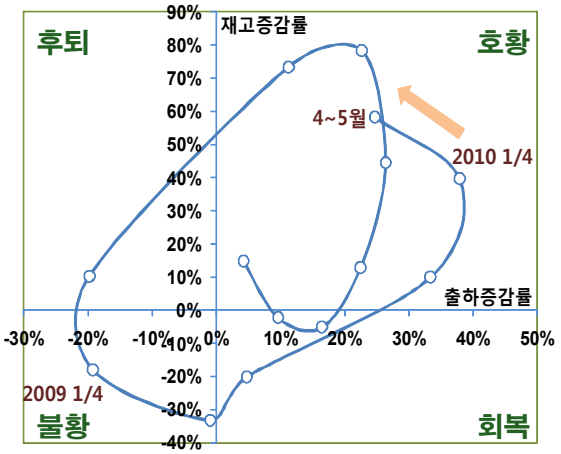
- **(재고-출하) 재고-출하 사이클 상 IT제조업은 2009년 4/4분기 이후 호황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IT제조업은 2009년 4/4분기 이후 출하증가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재고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호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가장 최근인 2010년 1/4분기 이후에도 출하증감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호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I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출하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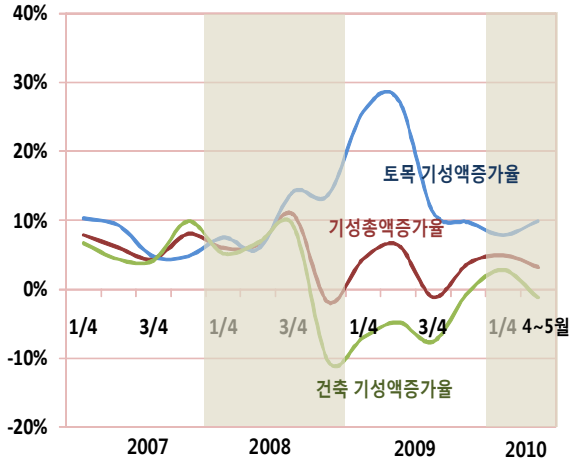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1)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⑨ 건설업 : 불황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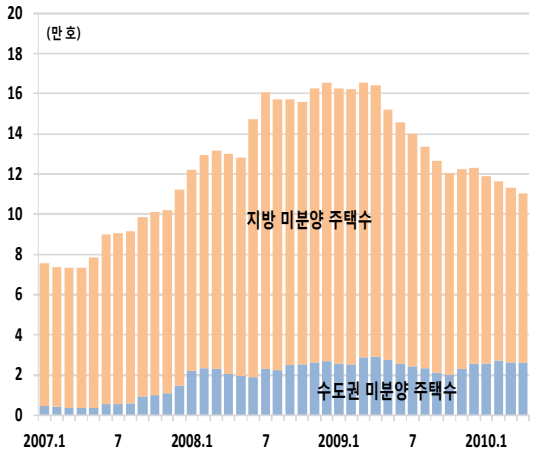
- **(건설기성) 전반적인 건설 경기 동향을 나타내 주는 건설기성액[3] 증가율은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공공·토목 부문의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민간·건축 건설 부문의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공공·토목 부문의 건설기성액 증가세가 10% 이하로 둔화되며 건설 경기 견인력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미분양 주택 시장) 민간·건축 부문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전체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여호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0년 4월 현재 약 11만여호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단, 이는 2007년초 7만여호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 수도권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미분양주택수 >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국토해양부.
주: 기성액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0년 4~5월은 월 증감률의 평균.

3) 건설기성액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2. 2010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1) 산업 전망의 전제 조건

○ **글로벌 여건 변화**[4]

- **세계 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 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중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201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3.9%보다 0.3%포인트가 높은 4.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
  - 단,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유로 지역은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교역 증가세 가속** :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세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MF는 미국과 개도국의 수요 확대로 세계 교역량은 2009년 10.7% 감소에서 2010년에는 7.0%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 여건 변화**[5]

- **2010년 경제성장률 5.3%** : 상반기 국내 경제도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2010년 연간 성장률을 기존 4.5%에서 5.3%로 상향 조정
  - 대외 여건 개선과 소비와 투자 호조로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갈 전망
  - 단, 기저 효과 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 정도는 낮으며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하는 '상고하저'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

---

4)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 Rebalancing Growth」 (2010년 4월) 참조.
5) 현대경제연구원 (2010.5.28.)의 "2010년 상반기 경기 회복과 수정 전망 - 하방 리스크 커지는 하반기", 경제주평, 10-20(통권 400호) 참조.

· 또한 남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상존, 외화유동성 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채 누증,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제고 등이 향후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외수 모두 호조** : 부문별로는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
  · 민간소비는 '기저효과'와 함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상반기는 5.2%, 하반기는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민간건설 부문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2010년 증가율은 2.2%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2010년 연간 13.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도 세계 경제와 교역량의 빠른 회복으로 연간 약 2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하반기 및 연간 경제 전망 >

구 분		2009	2010 (수정전)	2010 (수정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2	4.5	6.9	3.7	5.3
	민간소비 (%)	0.2	3.3	5.2	3.0	4.1
	건설투자 (%)	4.4	3.2	2.0	2.3	2.2
	설비투자 (%)	-9.1	9.5	20.0	6.0	13.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달러)	427	180	55	75	130
	무역수지 (억달러)	404	262	95	85	230
	수출 (억달러)	3,635	4,120	2,060	2,290	4,390
	(증가율, %)	(-13.9)	(12.9)	(25.0)	(15.2)	(20.8)
	수입 (억달러)	3,231	3,855	1,965	2,205	4,160
	(증가율, %)	(-25.8)	(19.7)	(35.1)	(24.1)	(28.8)

주 : ( ) 내는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을 의미.

(2) 산업 전망의 특징

○ 2010년 하반기 대부분 산업 경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주요 산업들이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당장은 선진국들이 저성장, 고실업, 저소비의 뉴노말(New Normal)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임

- 단,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회복 기조에 있고 특히 우리 산업들이 고성장을 지속중인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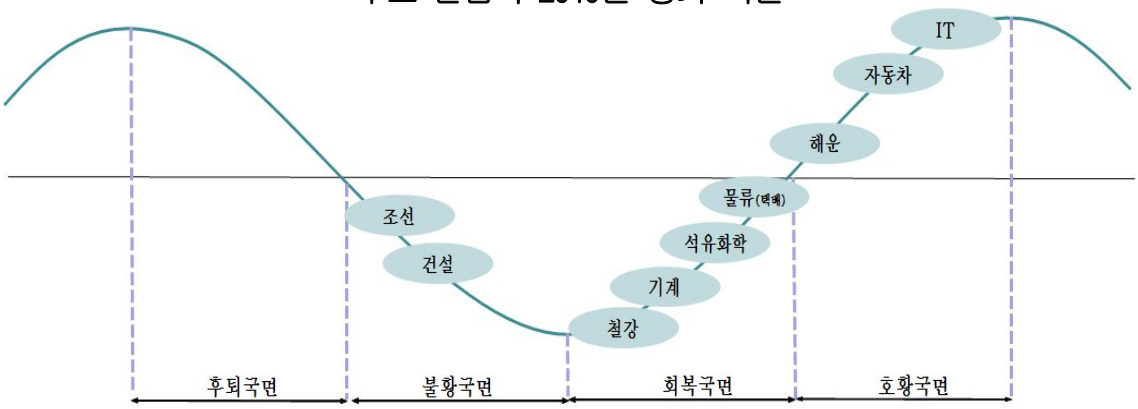
○ 하반기 산업별 경기 국면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호황 진입)** 다른 산업에 비해 먼저 글로벌 구조조정에 들어갔던 IT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호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출 경기 호조로 해운업의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회복 전환)** 한편 철강, 기계, 물류, 석유화학은 2009년의 침체 국면을 벗어나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불황 지속)**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며, 건설업 경기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임

< 주요 산업의 2010년 경기 국면 >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이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공급과잉 국면에 있거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산업들에서 경쟁 구도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철강산업은 현재 생산량이 증가하는 회복 국면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업들간 외형경쟁, 출혈경쟁이 진행되는 '치킨게임'의 영향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중동 국가들의 시장 진입으로 '치킨게임'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됨
  - 자동차산업은 점차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미국, 일본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과의 시장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IT제조업의 경우 애플 아이폰의 예에서 보듯이 신개념의 제조-서비스 융합제품 등장이 업계 순위 급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임

○ 가격 변수의 변동에 따라 업종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판단

- 환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군인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IT 등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 반면, 물류, 건설 등 내수산업은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한편 유가 상승으로 해운, 물류 등의 연료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의 비용 상승 부담이 예상됨

(3) 주요 산업의 하반기 전망 및 현안

① 조선업

하반기 선박의 건조 및 수출 실적은 선사들의 인도 지연 요구, 계약 취소 등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선박 수주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상반기 현황) 최근 선박수주가 전년대비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수주 불황** : 올해 1/4분기 수주량은 약 120만CGT[6]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4분기 415.6만 CGT에는 4분의 1에 불과

○ (2010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 수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건조 및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수주 침체 지속** : 하반기에도 전방산업인 해운업 경기가 호황을 보일 것이나 해운사들이 중고선박 위주로 선단을 확충할 것으로 보여 조선업의 신규수주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건조 및 수출 감소세 예상** : 기존 수주 물량이 많지만 선사들의 인도 지연, 계약 취소 등으로 건조량과 수출규모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조선업 전망 >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수주량 (만 CGT)	1,402.2 (-40.6%)	141.4 (-89.9%)	440 (211%)	500 (254%)
건조량 (만 CGT)	1,246.6 (21.0%)	1,226.1 (-1.6%)	1,360 (11%)	1,200 (-2%)
수출규모 (억달러)	409.6 (53.8%)	424.8 (3.7%)	450 (6%)	400 (-6%)

자료: 실적치는 한국조선협회(수주량, 건조량은 회원사 9개 합계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2010년 수치는 연평균을 의미,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6)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주요 현안) 조선업의 주요 현안으로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확보 노력, OECD의 신(新)조선협상 재개, 차입급증으로 인한 경영압박 지속 등이 예상**

-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응한 신기술 확보 노력** : 중국 조선업은 저임금에 따르는 가격경쟁력 우위와 거대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빠르게 추격중
  · 그러나 2010년 1/4분기 한국은 전 세계 신규수주의 51.5%를 차지함으로써 2009년 34.8%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던 중국을 밀어내고 다시 1위를 탈환
  · 조선업 내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OECD의 신(新)조선협상 재개** : 2005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OECD의 조선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조선업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
  · OECD 조선협상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저가수주금지조항이 관철될 경우 한국은 유럽 조선소와 같은 가격조건에서 수주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
  · 반면 비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대상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은 저가수주금지조항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

- **조선사들의 경영압박 지속** : 신규 수주의 급감과 과잉설비투자에 따르는 과도한 부채로 조선사들의 경영 압박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08년 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차입금은 각각 33억 원, 1,581억 원, 2,982억 원에 불과했으나,
  · 2010년 1분기에는 각각 1조 294억 원, 3조 1,673억 원 그리고 2조 3,807억 원으로 크게 증가
  · 신규수주가 예전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차입금의 급격한 축소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조선사들의 경영압박은 하반기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② 기계산업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업종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 하락으로 외국산 기계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상반기 현황) 세계 및 국내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업종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

- **경기 회복 국면 진입** :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기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 **금융위기 이전 실적수준에 미달** : 단, 2009년 침체 폭이 워낙 컸던 탓에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높으나 실적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 함

○ **(2010년 하반기 전망) 상반기보다 내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산 기계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 및 수출 회복세 강화** : 하반기에도 주요 산업들의 설비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외국산 기계류 수입도 증가** : 동시에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외국산 기계 수요도 늘어 기계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생 산(조원)	83 (-1.7%)	76 (-10.4%)	73 (-4%)	80 (5%)
수 출(억불)	348 (13.8%)	284 (-18.4%)	290 (2%)	300 (6%)
수 입(억불)	299 (6.9%)	261 (-12.7%)	245 (-6%)	280 (7%)
수 지(억불)	49	23	45	20

자료: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중국의 기계산업 육성 전략, 환율 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중동시장 수주 경쟁 격화 등이 예상됨**

- **중국의 기계산업 육성 전략** : 중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계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기계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0대 산업 진흥계획」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일반기계산업이 포함됨
  - 특히 2009년 발표된 '장비제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중국산 장비의 자국 시장점유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등 기기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중국의 기계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효과를 거둘 경우 국산 기계제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함

- **환율 하락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원화환율이 하락하면서 세계 중저가 기계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 금융위기 직후 국내 기계 산업의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은 세계 중저가 기계 시장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요인이 컸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향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 제품의 개도국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

- **중동시장 수주 경쟁 격화** : 유가 상승으로 2009년 주춤했던 중동지역의 설비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기업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사우디는 2015년까지 원유정제설비를 두 배 수준으로 확충
  - 또한 쿠웨이트와 UAE, 시리아 등이 도시 개발·철도 건설에 나서는 등 중동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기계 산업 강국인 일본, 독일과 중국 기업들의 수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③ 자동차산업

국내외 수요 확대,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상반기 현황) 국내외 경기 회복,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

- **생산 회복** :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구매력 상승으로 2010년 1/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97만대로 전년동기보다 40% 증가,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4분기의 101만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수출 호조** : 특히 수출의 경우 개도국 및 선진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경쟁국 기업들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 (2010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나 내수보다 수출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

- **내수 증가세 다소 둔화** :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내수 판매 회복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회복세 강화** : 그러나 수출의 경우 신흥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생 산(만대)		382.7 (-6.3%)	351.3 (-8.2%)	365 (4%)	380 (8%)
	내 수(만대)	115.4 (-5.3%)	139.4 (20.7%)	130 (-7%)	140 (0%)
	수 출(만대)	268.4 (-5.7%)	214.5 (-20.0%)	235 (10%)	240 (12%)
수 입(만대)		6.2 (15.5%)	6.1 (-1.0%)	7 (15%)	8 (31%)

자료: 실적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내수는 국산차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 기준, 수입차는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후발 자동차업체들의 글로벌 도약, 차세대 친환경차의 주도권 경쟁 심화, 주요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 등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후발 자동차업체들의 글로벌 도약**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자동차업체들의 대형화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
  -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유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인수했으며, 쓰촨텅중의 GM 산하 '허머', 베이징자동차의 '사브' 인수 시도 등 중국 업체들의 해외 M&A 시도가 활발
  - 또한 포드 산하 '재규어'와 '랜드로버'를 인수한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타타자동차는 최근 쌍용자동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차세대 친환경차의 주도권 경쟁 심화** : 글로벌 주요 이슈인 녹색 성장 추세에 맞추어 주요 업체들의 친환경차 개발과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양산 체제에 들어선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넘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린디젤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차세대 친환경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일본은 최근 차세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 :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고, 도요타도 리콜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업체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예상
  -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내실 경영과 글로벌 마케팅 체제의 정비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어 시장 주도권 회복을 위한 반격이 예상됨
  - 또한 도요타, 혼다 등 일본의 주요 업체들도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신차종 출시 등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④ 철강산업

철강 수요 확대로 내수,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벗어나고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 개도국의 시장 진입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가능성이 높아 철강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 상반기 현황) 국내외 경제 회복으로 내외수 철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심으로 1/4분기 전체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약 30% 증가

- **내수 및 생산 회복 지속** : 또한 국내 철강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어 선철 제품에 등에 대한 조강 생산량이 전년대비 29% 증가

○ **(2010년 하반기 전망) 수요는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도 상반기 회복 속도보다는 다소 둔화되며 연간 생산량은 2008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철강 수요의 회복세 둔화** : 건설, 조선 등 수요 산업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국내 철강 수요 역시 제한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철강 공급과잉의 우려** : 그러나 국내 생산은 국내외 업체 간 생산 경쟁의 심화로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음

< 철강산업 전망 >

구 분	2008	2009(E)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생 산 (만톤)	6,436 (4.3%)	5,701 (-11.4%)	5,800 (2%)	6,200 (9%)
수 출 (만톤)	2,079 (8.6%)	2,022 (-2.7%)	2,000 (-1%)	2,200 (9%)
수 입 (만톤)	2,894 (9.2%)	2,026 (-30.0%)	1,950 (-4%)	2,000 (-1%)
내 수 (만톤)	5,857 (6.2%)	4,580 (-21.8%)	4,850 (6%)	5,000 (9%)

자료: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 소재가 포함됨.

○ **(주요 현안) 철강산업에는 원가상승 압력 증대, 세계 철강 업계의 치킨 게임 시작, 적극적인 환경 문제 대응 노력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임**

- **원가상승 압력 증대** : 철광석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원료탄 가격 상승, 수요 증가까지 더해져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임
  - 세계 철광석 공급 시장의 빅 3 업체인 리오틴토, BHP 빌리턴, 발레는 2009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2010년에는 공급 가격의 인상이 현실화됨
  - 또한 세계 최대의 조강 생산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철강 제조업체들의 수요 증가도 철광석 가격 상승 지속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하반기에는 원료탄 역시 공급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강 제조업체들이 받는 원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

- **세계 철강 업계의 치킨 게임 시작** : 세계 철강 제조업체들 간의 생산설비과잉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생존을 위한 '치킨 게임'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음
  - 2009년 하반기부터 중국, 인도 등의 세계 주요 철강 업체들은 물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역시 생산 능력 및 생산량을 경쟁적으로 확대
  - 이에 따라 2010년 세계 조강 생산량은 경기 호황이었던 2008년 2분기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생산 설비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 초반 수준에 불과
  - 국내외 철강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킨 게임이 지속될 경우 인수·합병과 구조 조정이 증가하여 업계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업계의 적극적인 환경 문제 대응 노력** :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인 철강 제조업체들의 환경 비용 절감과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됨
  - 녹색 사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및 원료의 재활용을 포함하여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고로(高爐) 생산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녹색 설비의 도입, 수소 활용 고로 제철 기술 개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은 품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환경 비용이 적게 드는 전기로 생산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⑤ 석유화학산업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등 개도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따른 초과공급 우려로 업종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상반기 현황) 세계 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으로 물량 및 가격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

- **유화 제품 수요 회복** : 전년도 수출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가 소폭 증가함

- **주요 제품 가격 상승** :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은 상승함
  · 예를 들어 나프타 가격은 2009년 10월에 톤 당 655 달러에서 2010년 4월에 755달러로 크게 상승[7)]

○ **(2010년 하반기 전망)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르는 초과 공급 영향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형태가 전망됨**

- **초과 공급 전환** : 하반기 중국과 중동의 신규 설비 가동 본격화로 공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화학 경기 하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생 산 (만톤)	1,938.9 (3.7%)	2,099.5 (8.3%)	1,950 (-7%)	2,100 (0%)
수 출 (만톤)	1,377.8 (7.3%)	1,551.9 (12.6%)	1,450 (-7%)	1,600 (3%)
수 입 (만톤)	155.4 (-8.8%)	151.1 (-2.8%)	175 (16%)	250 (65%)
내 수 (만톤)	716.5 (-5.2%)	698.7 (-2.5%)	675 (-3%)	750 (7%)

자료: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및 무역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7) KOREA PDS, HI Research Center 재인용.

○ **(주요 현안) 석유화학 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 확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업계 내 구조재편 진행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

- **환율 하락에 따르는 수익성 악화** :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하반기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하반기 남유럽발 재정 위기 해소 및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원화가치 상승)할 가능성이 큼
  - 일반적으로 환율 하락은 원화환산 원유도입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내수 위주 산업에는 생산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국내 생산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환율 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한 원화환산 수출 대금이 감소하여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함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또한 올해 4월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20년 온실가스 전망치 대비 30%로 정함
  -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기준 5,306만 톤이며, 이는 제조업 배출량의 22.9%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강화될 경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

- **업계 내 구조재편 진행** : 업종 경기가 하강 사이클에 진입하고 중동국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업계 내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업종 경기 하락에 따르는 수익 악화로 공급 조정을 위한 M&A 또는 기업 폐쇄가 있을 가능성이 큼
  - 실제로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기업인 PETRONAS(Petroliam Nasional Berhad)는 에틸렌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계열사를 올해 5월 M&A 시장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함

⑥ 해운업

상반기 개도국의 고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대로 해운 경기가 호황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도 선진국 시장 수요 확대로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상반기 현황) 해운 경기는 중국 등 개도국의 고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대로 2009년의 침체를 벗어나 호황 국면에 진입

- **업종 경기 호황 국면 진입** : 전 부문에서 연초보다 상승된 지수흐름을 나타냄
  - 벌크선 BDI는 5월 26일 4,209 도달 후 6월 24일 2,010을 기록함
  - 컨테이너선 HRI는 1월 6일 335.5에서 6월 23일 611.8까지 빠르게 회복중임
  - 유조선 AG-동아시아항로운임지수(WS)는 1월 8일 60에서 6월 24일 90으로 상승

○ (2010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는 선진국 경제도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상승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물동량 수요 증가** : 수요 측면에서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물동량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운 경기 상승세가 강화될 전망임

- **초과공급 압력도 점차 해소 전망** : 해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의 초과 공급 문제도 완화되면서 운임 단가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해운지수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벌크선 [BDI (1985=1,000)]	6,390	2,617	2,350	3,800
컨테이너선 [HRI (1997=1,000)]	1,134	366	370	700
유조선 [AG-동아시아(WS)]	133	42	47	100

자료: 실적치는 해양수산개발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위 수치들은 연평균.

○ **(주요 현안) 중국 원자재 운송 수요 급증, 글로벌 해운사들의 선단 확대 노력, 중국의 선박펀드사업 육성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원자재 운송 수요 급증에 따른 물량 확보 경쟁 심화** :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가 제조업 위주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원자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철광석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전체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중 68%를 소비하고 있으며,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2009년 8억 7,000만 톤에서 2010년 10억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벌크선 경기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원자재 물동량 확보가 업계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해운사들의 선단 확대 노력** :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물동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의 선단 확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해운사 지원에 나선 가운데,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급증하여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해운업의 글로벌 구조조정 문제는 종결된 상황임
  - 특히 이 과정에서 주요 해운사들은 용선을 줄이는 대신 보유선박의 규모는 늘리는 방식으로 체질을 크게 개선할 것임
  - 따라서 해운업 침체로 선박 구입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물동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제적으로 선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전망임

- **중국의 선박펀드사업 육성 정책** : 중국은 아시아 선박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 2009년초부터 중국은행, 중국수출신용 보험공사 그리고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선박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중국 최초의 '조선산업 투자펀드'가 2009년 12월 200억 위안(약 26억 달러)의 규모로 천진에서 등록됨
  - 국내 선박금융은 한국산업은행 등이 주도하고 있으나 유럽 및 일본계 은행에 비해 대출규모가 20%도 못 미쳐서 이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⑦ 물류택배업

상반기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업종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내수 경기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상반기 현황)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택배시장은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 시현

- **전방산업(수요산업)의 매출 급증**: 사이버쇼핑몰, 홈쇼핑 등 무점포업태의 판매액은 2010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8.5% 급증함
  · 사이버쇼핑몰 판매액지수는 2010년에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택배업체의 실적 호조**: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업체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함
  · 2010년 1/4분기 택배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하반기 전망) 내수 경기 회복세 강화로 시장 규모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공급 측면에서 업체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수요 측면**: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2010년 연간 기준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공급 측면**: 신규 대형업체(삼성 등)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M&A, 터미널 확충 등을 통한 외형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물류(택배)업 전망 >

(단위: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택배 시장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2.6 (13.3%)	2.9 (12.1%)	3.0 (3%)	3.3 (14%)

자료: 실적치는 물류신문사,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2010년 증감률은 이전 3개년 평균성장률과 2010년 1/4분기 실적을 감안하여 산정.

○ **(주요 현안)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으로 업계 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정부의 물류산업 선진화 추진** : 정부는 녹색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택배업 육성 등 물류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중임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연내 통과 추진중: 녹색물류인증제와 녹색물류협의체 신설,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물류과제가 핵심임
  - '택배업 종합육성 방안' 수립중: 택배업을 '高부가가치 新성장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육성방안을 마련중
    기본방향 1. 택배업을 高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지원
    기본방향 2. 신뢰받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발전
    기본방향 3. 택배 관련 불법·편법 운송행위 단속 강화

< 택배업 종합육성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 >

기본 방향	정책 과제
1.택배산업을 高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육성·지원	- 택배 업종 신설 - 택배 운임 인가제 도입 검토 - 택배 집/배송 터미널 및 운전인력 확충 지원 - 택배차량 공급 과부족 문제 해소
2.신뢰받는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발전	-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활성화 - 택배 민원(해피)센터 설립·운영 - 택배 서비스 평가·공시 제도 도입 검토
3.택배관련 불법·편법 운송행위 단속 강화	- 택배 운임이 낮은 택배사 실태조사 실시 - 택배사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자료 : 국토해양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 2010.3.12.

- **대기업의 물류업 진출 활발 및 업계 순위구도 재편 예상:** 최근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의 물류업 진출이 추진되고 있어,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한 M&A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순위구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삼성그룹은 그룹 SI 업체인 SDS에게 그룹의 국내외 물류를 맡기고 물류업체 M&A도 진행중임
  - 롯데그룹은 자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를 확장하는 한편 택배업 진출을 시도함
  - 한솔CSN는 현재 물류업 강화와 함께 택배사 M&A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⑧ IT제조업

2009년 말 이미 회복국면에 진입한 IT제조업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윈도 7의 보급 확대 ,스마트 폰 출시 등에 따른 제품 수요 상승으로 호황국면이 전망

○ **(2010년 상반기 현황) 2009년 말 이후 회복국면에 들어선 반도체 산업은 장기 호황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정보통신 완제품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

- **반도체 산업 장기호황 국면 진입** : 상반기는 메모리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이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기조가 나타나고 있음

- **정보통신 완제품 수요 대폭 증가** :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중국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확대 등으로 글로벌 출하가 대폭 증가함

○ **(2010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도 '윈도7' 보급 확대, 스마트 폰 시장의 확장 등으로 반도체 및 완제품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 수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 : '윈도7'이 탑재된 PC 출하 확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수요 증가로 DRAM, NAND 공급 부족이 예상됨

- **완제품 수요도 지속 증가** : 완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신규 진입업체와 기존 업체 간의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 하락이 우려됨

< IT제조업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생 산 (조 원)	224.3 (18.4%)	227.1 (1.2%)	200 (-12%)	280 (23%)
수 출 (억 달러)	1,195.5 (0.1%)	1,098.0 (-8.2%)	1,000 (-9%)	1,800 (64%)
수 입 (억 달러)	632.0 (5.2%)	536.4 (-15.1%)	500 (-7%)	850 (58%)

자료: 실적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T 제조 산업은 반도체 등 부품산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등 완제품 산업을 합친 것임.

○ **(주요 현안) 스마트폰의 확산, 구글과 애플의 TV 시장 진출, 미디어 산업 확대로 IT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NAND 수요 급증** : 하반기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17%로 예상되면서 모바일 OS, 모바일 앱의 개발 경쟁 격화와 NAND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애플 iPhone의 OS X, Google의 안드로이드, 삼성 바다의 경쟁 속에서 노키아 역시 인텔과 협력하여 Meego라는 새로운 OS를 출시할 예정임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여부가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면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앱스토어를 확장중임
  - 스마트폰으로부터 파생되는 NAND 메모리 수요는 25억 GB에 이를 전망이어서 전체 NAND 수요 117억 GB의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 TV 시장 진출 :** 구글과 애플은 소니 등과 제휴하여 스마트 TV를 출시함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 구글은 소니, 인텔 등과 공동으로 자사의 개방형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이용한 융합 TV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 애플 역시 지상파, 케이블 및 위성방송 등 기존 TV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라이브러리, 모바일 앱을 즐길 수 있는 TV 상품을 개발 중
  -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스마트 TV 시대를 대비하여 콘텐츠 확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미디어 산업 팽창으로 수요 확대 :** 북미, 서유럽, 일본 등에서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로 방송, 신문, 영화, 출판 등 미디어 산업의 팽창이 예상됨
  - 북미 미디어 업체들은 세계 최고의 미디어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3D 영화, 전자책, IPTV 대중화를 추진중임
  - 3D TV, 태블릿 PC, 스마트 폰 등 차세대 IT 제품들의 판매 급증이 전망됨
  - 따라서 이에 대한 후방 산업연관효과로 TFT LCD, LED, 2차전지 등 핵심 전기전자 부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⑨ 건설업

공공·토목 부문은 기존 대규모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 및 건축 부문은 주택 경기 침체로 감소세가 예상됨

○ **(2010년 상반기 현황) 공공 및 토목 부문 건설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 및 건축 경기는 부진한 모습**

- **공공·토목 부문 호조** : 상반기 공공 부문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된 물량이 완공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중임

- **민간·건축 부문 부진** : 주택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건축 건설기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미약한 수준임

○ **(2010년 하반기 전망)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건설기성은 기존 대규모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민간 및 건축 부문 기성실적은 주택 경기 침체로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공공·토목 부문 호조 지속** : 정부 계속 사업의 추진 등으로 공공 및 토목 부문 건설 실적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건축 부문 침체 지속** : 하반기에도 주택경기가 침체를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민간·건축 부문 실적과 수주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 전망 (건설기성액) >

(단위 : 조 원)

		2008	2009	2010(E)	
				2009년 10월 전망	2010년 6월 전망
주체별	공 공	26.7 (6.5%)	32.4 (21.4%)	40 (23%)	42 (30%)
	민 간	60.2 (4.2%)	57.1 (-5.2%)	55 (-4%)	50 (-12%)
공종별	토 목	31.6 (10.5%)	37.2 (17.7%)	43 (16%)	43 (16%)
	건 축	55.4 (2.0%)	52.7 (-4.9%)	52 (-1%)	49 (-7%)
전체		87.0 (4.9%)	89.9 (3.3%)	95 (6%)	92 (2%)

자료: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향후 건설업에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 수급 악순환, 미분양 문제 지속에 따른 건설업 구조조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보금자리 주택 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 수급 악순환** : 보금자리주택은 시장을 양분하고 가격을 교란시켜 시장에 공급된 물량보다 주택 수요를 더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일반 분양 시장에서의 아파트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음
  -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고,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함
  - 정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의 13만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증가한 수준임
  - 실제로 2009년 강남권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5% 정도에 공급되었으며,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음

- **미분양 문제 지속에 따른 건설업 구조조정** : 미분양 주택 문제 지속으로 건설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2009년 3월 16만 6,000여호에서 2010년 4월 현재 약 11만여호로 감소함
  - 그러나 현재 전체 물량중 약 77%인 8만 5,000여호가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어서 거주 수요가 크게 확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미분양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급진전될 전망임

3. 시사점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은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시장 진입으로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은 가격 경쟁을 통한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이 점차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업계의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 확보를 통해 생존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우리 반도체 산업이 치킨게임에서 생존하여 현재 글로벌 선두 지위를 확보한 경험을 살려야 할 것임

둘째, 산업 전략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 급성장하는 이종융합산업과 같은 차세대 수종산업(樹種産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보듯이 국내 주요 중화학-수출 산업들이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

- 이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에서 벗어나 신수종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기로 생각됨
  - 특히 최근 애플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종 융합 제품인 아이폰을 통해 시장 진입기업이 바로 시장 선도기업으로 올라섰던 사례와 같이 제조업 기반에 안주해서는 우리 산업들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됨

셋째, 원자재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업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리스크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을 통한 공동 구매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여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원자재 가격이 낮을 때 원자재에 대한 비축 물량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 및 방출 대책'을 체계화해야 할 것임

넷째,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해 정체되고 있는 선진국의 뉴노말 소비시장과 고성장중인 아시아 소비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공략이 요구된다.

- 선진국 소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가·고기술 제품 위주의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반면,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져 구매력이 확대되고 고급품 소비 욕구도 높아지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을 겨냥한 차별적인 시장 공략이 요구됨
  · 예를 들어 BMW가 매스티지 (Masstige, prestige for the masses, 준명품) 전략을 통해 성공한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들도 고급 브랜드이면서 중저가인 제품에 대한 개발 및 마케팅을 서둘러야 할 것임

다섯째, 산업 경기 사이클 별로 차별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

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내
불황이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전염효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해운업과 같이 수출 경기 회복으로 경기 호황 국면에 진입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생산 능력의 확충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산업 전망 담당 연구원

【총 괄】 한상완 산업전략본부장 (swhan@hri.co.kr, 2072-6230)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조선업 · 해운업】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2072-6232)
【기계산업】 전해영 연구원 (haloween@hri.co.kr, 2072-6241)
【자동차산업】 허만율 연구위원 (myhur112@hri.co.kr, 2072-6236)
【철강산업】 김필수 연구원 (phil7941@hri.co.kr, 2072-6238)
【석유화학산업】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2072-6239)
【물류택배업】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2072-6231)
【IT제조업】 김종호 연구위원 (jonghokim@hri.co.kr, 2072-6240)
【건설업】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HRI 經濟 指標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7	2008P	2009P					2010E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1	2.3	-4.3	-2.2	1.0	6.0	0.2	8.1	5.3
	민간소비 (%)		5.1	1.3	-4.4	-1.0	0.7	5.8	0.2	6.3	4.1
	건설투자 (%)		1.4	-2.8	2.8	5.1	4.4	5.0	4.4	2.3	2.2
	설비투자 (%)		9.3	-1.0	-23.1	-17.3	-7.0	13.3	-9.1	29.9	13.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9	-58	86	131	104	106	427	12	13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46	-133	30	170	102	124	426	33	230
		수출 (억 $)	3,715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4	4,390
		증감률 (%)	(14.1)	(13.6)	(-25.2)	(-21.1)	(-17.6)	(11.7)	(-13.9)	(36.2)	(20.8)
		수입 (억 $)	3,568	4,353	714	740	848	929	3,231	981	4,160
		증감률 (%)	(15.3)	(22.0)	(-32.7)	(-35.6)	(-31.0)	(1.4)	(-25.8)	(37.3)	(28.8)
소비자물가 상승률 (%)			2.5	4.7	3.9	2.8	2.0	2.4	2.8	2.7	3.1
실업률 (%)			3.2	3.2	3.8	3.8	3.6	3.3	3.6	4.7	3.6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68	94	44	59	68	75	62	76	8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29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